

동국대학교 2024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성 명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화면 우측 답안 작성란에 작성하십시오.
- ◇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며, 비정상 로그아웃 되어도 시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 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각 문제에서 제시한 분량을 초과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문장부호와 알파벳 등은 원고지 작성법과 다르게 입력되니 참고 바랍니다.
- ◇ 답안 작성 시 복사하기, 붙여넣기 등의 기능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 ◇ 답안지 본문 작성 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경부는 2016년 7월 6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 식도(하늘 찾길) 설치 운영 기준’에 맞지 않고, 케이블카 노선이 국립 공원 특별 보호 구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공익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미흡하다며 경상남도의 사업 신청을 반려하였다. 경상남도가 선정한 케이블카 노선은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서 마천면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구간으로, 세계 최장 규모다. 이 노선은 지리산 국립 공원의 주 능선을 넘어가고 국립 공원 특별 보호 구역인 칠선 계곡을 통과한다. 우리나라 3대 계곡 중 하나인 칠선 계곡은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반달가슴곰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로 보전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환경단체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호’가 목적인 국립 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이 옳지 않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환경부의 반려에도 굴하지 않고, 사업을 보완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매일경제》, 2016. 7. 7.-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뭐든 혼자 하는 ‘혼족의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고독사의 증가와 같은 쓸쓸한 사회적 현상을 동반할 것입니다. 어제의 인사가 오늘의 안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각각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 그 사람이 며칠씩 안 보여도 바쁜 모양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지나치는 것이죠. 그가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살아달 수도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기우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일상에 파묻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쳤고, 결국 부고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 상념으로 괴로워지고 엄청난 아픔이 밀려옵니다.

‘함께’ 하고 ‘더불어’ 하는 걸 즐거워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함께’ 하고 ‘더불어’ 하는 일에 무심하고 귀찮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작은 힘이나마 필요한 곳엔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관한 관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삶이 지금 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동일,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고등학교 국어』

【다】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오며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인간 중심주의는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게

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 자연관에 근거한다. 인간 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자연에 관한 지배적인 관점에서 자리매김한 이래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인간이 자유를 위해 억압에 항거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근대 유럽에서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개인주의 사상이 나타났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자유주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1] 제시문 [가], [나]를 제시문 [다], [라]의 관점에서 각각 비판하시오.

<2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한다. 이때 생산은 단순히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이나 배달과 같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증진하는 활동 모두를 말한다. 기업은 이와 같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기업의 목적은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의 추구이다. 기업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조직과 조직 문화를 바꿔 보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고등학교 경제』

【나】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선 기업은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며, 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덜 일으키는 환경 상품의 개발 등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21개국 정상들은 지난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환경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 인하 공동 이행 지침’에 합의하고, 모든 회원국은 환경 상품에 대해 2015년 말까지 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관세 인하 품목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물품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으로 풍력 발전기 부품, 가스·매연 분석기, 태양열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 86개 환경 상품들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15년 12월에 ‘국제 협력 관세율표’를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APEC 환경 상품 86개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반면, 환경 개발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자연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환경보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환경 보전과 개발은 각각의 목적을 서로 저해하는 갈등 상황, 즉 보전과 성장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

고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한다. 즉, 미래 세대도 현세대만큼 잘 살 수 있게 하는 범위에서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기술인 태양광 기술을 이용하면 환경 보전과 경제성장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면 우리는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환경 보전과 성장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마】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에 들어설 조력 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이○○ 가로림 조력 발전 기술 팀장은 조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력 발전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갯벌 면적이 현재 보다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다.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 위원회는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 어민의 생계 터전”이라며 “가로림만 입구에 조력 발전을 위한 방조제를 건설하면 갯벌 감소에 따른 수질 악화, 어패류의 산란·서식 여건 파괴로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2] 제시문 【나】에 나타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가】에서 서술된 기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다】,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기업의 친환경 투자가 때로는 환경에 어떠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마】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럽에서 마취제 없이 이루어진 동물실험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인간은 동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인간의 불만족스러운 자질을 동물에 빗대어 말하고, 바람직한 자질은 동물과 대비하여 돋보이게 한다. 동족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과도하게 바라며, 지속적인 성욕을 가지는 것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연적 충동을 동물의 속성으로 돌렸다. 인간과 동물의 이러한 구분은 사냥과 육식, 동물 실험 등을 정당화하였다. ……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생각은 사람도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 짓게 하였다. 인간성의 본질을 이성, 언어, 종교, 문화, 예절 등과 같은 특유의 자질로 정의하면, 이를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자는 ‘인간 이하’가 된다. 인간 이하의 존재는 사육하고 길들여야 하는 유용한 짐승이거나 제거해야 할 맹수나 해충으로 여겨졌다. 동물의 노예화와 사육화를 토대로 형성된 위계적 사고는 동물이나 ‘동물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고 조장한다.

-패터슨(Patterson, C.), 『동물 홀로코스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한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데 이성이나 언어구사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계승한 밀도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늘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싱어는 이러한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생략) “오늘밤 안에 보내 주고 싶구나.”

나는 하마터면 어머니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 얘기는 꺼내지 못했다. 전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말도 주말에 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든 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시동을 걸었다.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서부터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부천까지는 한 시간 반 남짓 걸렸다. 부천에서 가평까지는 두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선산이라, 선산이란 말이지……. 죽은 개를 꼭 선산에 묻어야겠다는 말씀인 거지……. 나는 나도 모르게 끄, 소리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돌렸다. 외곽 순환 도로는 역시나 꽉 막혀 있었다.

어머니와 십육 년을 함께 산 몰티즈 ‘봉순이’의 몸이 예사롭지 않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맘때쯤부터였다.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눈가가 별정계 변해 가는 게 싫더니, 아니나 다를까 울여름 어머니 생신 때 가 보니 치매기가 역력했다. 똥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베란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고 넘어 지는 게 하면 사료를 먹고 토하고 또 사료를 먹는 일을 반복했다. 관절염 때문에 예전처럼 소파 위로 올라오지도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한다는 말을 하는 어머니의 표정은 묘하게도 봉순이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내 불안은 시작된 것인지는 모른다.

사실 봉순이를 처음 애견 매장에서 분양받아 어머니 품에 맡긴 것은 나였다. 환갑이 되자마자 간암으로 세상을 뜬 아버지의 빈자리를 나는 그런 식으로 메우려 했다. 남양주에서 막 신혼집을 꾸린 것도 그때였고, 아무래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으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봉순이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봉순이는 훌륭히 그 역할을 해 나갔다. 그런 봉순이가 세상을 뜬 것이었다. 그러니……. 법규에 나온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사체를 처리하라는 말을, 그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럭저럭 구덩이의 형태를 갖추어 갈 때쯤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흘 전쯤에 말이다……. 봉순이가 눈감기 사흘 전쯤에…….”

(생략)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내 베개 옆에 가만히 엎드려서 뻥히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잠결에 애를 안아 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봉순이가, 봉순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더라…….”

나는 삼날에 걸린 커다란 돌부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돌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봉순이를 왈칫 안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가 봉순이가 엎드려 있던 곳을 보니까……. 거기에 내 양말 두 짝이 얽전히 놓여 있는 거야…….”

어머니는 계속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사람한테 일 년이 강아지한테 칠 년이라고 하더라. 봉순이는 칠 년도 넘게 아픈 몸으로 내 옆을 지켜 준 거야. 내 양말을 제 몸으로 데워 주면서.”

나는 묵묵히 계속 삼질만 했다. 내가 파고 있는 어두운 구덩이가 어쩐지 꼭 내 마음만 같았다.

(이기호, 「우리에게 일 년 누군가에게 칠 년」)

-『고등학교 문학』

[문제3]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각각 요약하여 서술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글에 나타난 화자 '나'의 봉순이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와 태도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50 ~ 700자> [40점]